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협회(회장 조현정)는 지난 11월 3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장 박성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회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동이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회의 회원사가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권리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 저작권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운영하는 GSM(모바일콘텐츠 테스트베드)을 협회 회원사에게도 동일한 혜택으로 제공하고, 테스트를 통한 해외 진출 시 협회의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조현정 회장은 “연구조사, 통계자료 등 양 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 연구조사 등을 통해 벤처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창업기업과의 후견인제도 세미나 개최

협회는 차세대 벤처인 육성을 위해 작년 10월 출범한 '리딩 벤처인 & 대학생 기업인 간 후견인제도'의 일환으로 <대학생 창업기업과의 후견인제도 세미나>를 12월 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후견인제도의 멘토링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온 리딩벤처기업인과 대학생 벤처 매칭커플을 비롯해 후견인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창업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리딩기업인의 스승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 권옥현 교수가 참석하여 '대학 벤처와 서울대 제어정보 연구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밖에 후견인 매칭커플 간의 개별미팅과 성공적인 멘토링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협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후견인제도의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별 벤처기업 활성화 사업 사례 발표회 개최



협회와 기술거래소는 12월 7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지방벤처기업을 위한 지역별 벤처기업 활성화 사업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한국기술거래소 김경환 본부장이 '기술사업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협회 이민화 고문이 '지방벤처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울산지회, 전북지회,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제주지회는 각각 지역별 사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개별강평을 진행했다. 울산지회는 동유럽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사례, 전북지회는 전북 벤처기술 박람회와 전북 벤처기업 제품 로드쇼 개최 사례,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는 지역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사업, 제주지회는 미니시장개척단 파견 사례 등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방특화산업에 따른 지원전략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원 등 지역 벤처기업이 갖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